

# 외인 복권, 타자가 확률 높다

투수와 달리 '에브리데이 플레이어' 키움 샌즈, 지난해 대체 영입 대박 삼성 월리엄슨도 데뷔전부터 폭발

포스트시즌(PS) 진출 가능성이 남아 있는 팀이 꺼낼 수 있는 반전카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외국인선수 교체다. 결과는 투경을 열어봐야 하지만 기존 외국인선수의 퍼포먼스가 신통치 않았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조치다. 확실한 계산이 서지 않는 외국인선수를 보유한 팀이라면 '혹시나' 하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시간은 많지 않다. 새 외국인선수를 P S에서 활용하기 위해선 8월15일 오후 11시59분까지 KBO(한국야구위원회)에 선수 등록을 마쳐야 한다. 취업비자 발급을 모두 마무리해야 선수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단관계자들도 무척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 ● 대체 외국인타자의 좋은 예? 샌츠처럼!

87타점을 쏟아내며 올 시즌 KBO 리그 이 부문 1위를 질주 중인 제리 샌츠(키움 히어로즈)는 지난해 8월 12일에야 한국에 도착해 취업비자 발급 등 서류 정리를 위해 바쁘게 움직였고, 마감시한 직전에 등록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올 시즌에도 97경기 타율 0.323, 20홈런, 87타점으로 맹활약 중인데 지난해에는 25경기에만 나서고도 타율 0.314, 12홈런, 37타점의 맹타를 휘두르며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에 기여했다. 외국인타자 교체를 고려하는 대부분의 구단이 그러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바로 샌츠의 사례다.

### ● 삼성 월리엄슨, 데뷔전부터 인상적

삼성 웨이버 공시된 투수 저스틴 헤일리의 대체자로 지난 25일 외야수 맥

월리엄슨을 영입했다. 2015년 KT 위즈(현 블랙·故 앤디 마르테) 이후 외국인 타자 2명을 활용하는 첫 사례다. 당시 K T는 신생팀의 특혜로 외국인선수 보유 한도가 4명이었던 점이 지금과 다르다. 외국인선수 시장에 데려올 만한 투수가 마땅치 않은 데다 단기 효과를 노리기에는 타자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외국인투수가 등판하지 않는 날은 다린 러프와 월리엄슨의 타자 2명을 활용하며 타선에 파괴력을 더할 수 있다. 실제로 월리엄슨은 데뷔전인 27일 대구 한화 이글스전에서 2안타 1타점을 기록하며 승리를 이끌기도 했다. 타격 시 하체가 무너지지 않는 안정된 자세와 단시간에 팀에 융화하는 모습까지 합격점을 받기에 충분했다.

### ● NPB 입성한 두 빅리거도 시작부터 폭발

메이저리그(MLB) 통산 770경기에 출전한 외야수 레오니스 마틴은 26일 지바 롯데 마린스 유니폼을 입고 NPB 데뷔전을 치렀다. 27일 라쿠텐 골든이글스와 홈경기에선 7-7로 맞선 8회 결승 2점 홈런을 터트리며 등 4타수2안타3타점을 기록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MLB 670경기 기록이 있는 야구계 거장인 솔라르데 또한 한신 타이거즈 데뷔전인 26일 요미우리 자이언츠전에서 2점 홈런을 날리며 팬들의 감동을 풀어줬다. 게다가 지바 롯데와 한신은 모두 가을야구 진출 가시권에 있다. 지원군이 보여준 강한 첫인상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호쾌한 한 방으로 팬들을 매료시키는 외국인타자의 존재 이유를 보여준 대목이다. 무엇보다 타자는 선발투수와 달리 '에브리데이 플레이어'다. 직전 경기의 부진을 메울 기회도 그만큼 많다. KBO리그에서 단기간에 강력한 임팩트를 원한다면 외국인타자 2명을 선택하는 것도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외야수 맥 월리엄슨은 투수 저스틴 헤일리의 대체 선수로 삼성에 27일 합류했다. 삼성은 올 시즌 KBO리그에서 유일하게 타자 2명을 활용하는 팀이다. 부진한 외국인 선수 교체는 포스트시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특효약이다. 투수의 중요성이 크지만 단기효과를 노린다면 타자 추가 영입도 괜찮은 카드다. 스포츠동아DB



SK 박민호

## "1점차라면 무조건 막아야" SK 박민호의 필승조 철학

SK 와이번스 박민호(27)는 데뷔 이래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팀과 동료들 앞에서 생각하는 마음은 그의 존재 가치를 더욱 빛낸다.

감초와도 같은 박민호의 활약에 SK 필승조는 더욱 막강해졌다. 우완 서진용, 좌완 김태훈에 사이드 투수 박민호가 가세하면서 마무리 투수 하재훈으로 향하는 필승 공식이 다채롭다. 일찌감치 커리어 하이로 예약한 박민호가 31경기(31.2이닝) 평균자책점 2.56으로 호투를 거듭하는 덕분에 필승조 전원은 적절히 휴식을 취하며 시너지를 내고 있다. SK가 거둔 올 시즌 최고의 수확이다.

첫 풀타임 시즌을 통해 '나'를 알아가는 중이다. 박민호는 그간 선발부터 패전, 필승조까지 팀의 필요에 의해 여러 보직을 맡아왔다. "나는 선발 투수인가 불펜 투수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던 박민호는 2017~2018년 상무에서 구원 투수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 올 시즌 SK에서도 보조 필승조의 역할을 맡아 지속적으로 경험을 쌓고 있다.

"상무에 다녀오기 전까지는 그저 1군에서 생존 경쟁을 하던 투수였다. 사실 그동안 한 게 없다"고 돌아본 박민호는 "이제는 내가 어떤 투수인지 알고 있다. 연투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의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됐다. 지금도 계속해서 정체성을 찾는 단계"라고 했다.

이어 "1점차로 이기는 경기도 무사히 막고 내려와야 진짜 필승조다. 지금보다 공이 더 좋아지고 신뢰를 줘야 팀이 이길 때 믿고 내보낼 수 있는 투수가 될 수 있다"며 "지금도 '필승조라서 좋다'가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더욱 집중해서 던져야 한다는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털어놨다.

10홀드·50경기·50이닝 등 수치상의 개인 목표를 세워두긴 했지만 큰 의미는 없다. "동료들을 위해 기적이 조연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더 가지게 여기고 있다.

항상 다짐하고 있는 진정한 목표는 "매 경기 포수가 던지라는 곳에 정확하게 공을 던지는 것"이다. 박민호는 "동료들이 잘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이 내가 야구를 하는 이유이자 삶의 가치관"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 SK 김광현·산체스, 역대급 원투펀치 계보 이을까

산체스, 벌써 14승... 김광현 12승 둘이 합쳐 최소 33승 합작 페이스

SK 와이번스 김광현(31)과 양현 산체스(30)가 최강의 원투펀치다운 위력을 한껏 뽐내고 있다. 후반기에도 앞 다퉈 승리를 보태며 합작 26승을 거뒀다. 역대 최강의 원투펀치 계보까지 이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산체스는 28일 사직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7이닝 4안타 8삼진 무실점으로 가볍게 시즌 14승(2패)째를 챙겼다. 평균자책점(E RA)도 2.28에서 2.14로 더 낮았다. 다승, ERA, 승률(0.875) 모두에서 두산 베어스 조쉬 린드블럼(15승1패·ERA 2.01·승률 0.938)에 이어 2위다. 삼진까지 포함해 투수 부문 4관왕에 도전하는 린드블럼에 필

적하는 성적이다. 시즌 종료 후 두 외국인 투수의 희비가 어떻게 갈릴지 흥미진진한 경쟁이다.

김광현도 눈부시다. 12승3패, ERA 2.65로 국내투수들 중 다승, ERA 1위다. 삼진은 126개로 린드블럼과 함께 공동 1위다. 산체스처럼 후반기 첫 선발등판이었던 26일 사직 롯데전에서 7이닝 4안타 5삼진 2실점으로 승리를 추가했다. 팔꿈치 인대 접합수술을 받고 2017년을 통째로 날렸음에도 지난해 11승(8패·ERA 2.98)에 이어 올해 한층 더 강력해진 모습이다. 이미 129이닝을 소화해 2016년의 137이닝, 지난해의 136이닝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만

제다.

2016년 두산 소속 서스턴 니퍼트와 마이클 보우덴은 각각 22승, 18승으로 무려 40승을 합작했다. 2017년에는 KIA 타이거즈 양현종과 헥터 노에시가 나란히 20승 고지를 밟았고, 지난해에는 다시 두산 세스 후랭코프(18승)와 린드블럼(15승)이 33승을 합작했다. SK가 45경기를 남겨두고 있어 산체스와 김광현이 최소 합작 33승은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BO리그 역대 최강의 원투펀치는 1985년 나란히 25승을 신고한 삼성 라이온즈 김시진-김일웅이다. 그로부터 32년 만에 다시 동반 20승 고지를 밟은 2017년의

양현종-헥터, 합작 40승에 빛나는 2016년의 니퍼트-보우덴 듀오도 최강 원투펀치로 손색없었다. 1983년 삼미 슈퍼스타즈 장명부(30승)-임호균(12승)까지 포함해 원투펀치가 합작 40승을 기록한 사례는 역대 4차례뿐이었다.

김광현과 산체스의 합작 40승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기세를 살려나간다면 역대 최강의 원투펀치 계보를 이을 만한 성적이 기대된다. 전무후무한 시즌 100승에 대한 기대감을 낳고 있는 선두 SK이기에 김광현-산체스의 승수 쌓기 또한 후반기 주요 관심사임에 틀림없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 '10승 투수' 이영하, 더 큰 투수로 키운다

2년 연속 10승... 두산 마운드의 미래 김태형 감독, 스파르타식 교육 효과

"마음에 드는 건 없었죠." 두산 베어스 김태형 감독(52)은 28일 잠실구장에서 지난 27일 10승을 기록한 이영하(22)의 투구에 대해 솔직한 평가를 내렸다. 김 감독의 초점은 단순히 기록이 아니라 내용에 맞춰져 있었다. 이영하는 27일 KIA 타이거즈전에서 5이닝 무실점 투구로 시즌 10승째를 기록

했다. 전반기를 아홉수로 마무리한 뒤 후반기 첫 등판에서 어렵게 거둔 두 자릿수 승리. 2년 연속 10승을 마크하며 선발자원으로서의 대성장을 예고했다.

그럼에도 김 감독에게 만족은 없었다. 볼넷을 3개 허용하며 타자와 어렵게 승부를 한 점을 꼬집었다. 이영하의 투구에 대해 "공공대며 던진 감이 있었다. 스트라이크존도 높게 형성됐다"며 아쉬운 점을 먼저 짚었다. 김 감독은 평소 이영하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두려움 없이 공을 던지며 감타



두산 이영하

자를 만나면 더 공격적으로 투구하는 강한 모습으로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김 감독은 팀의 10년 미래를 책임질 투수 자원이라 생각해 경험이 부족한 가운데도 선발 자리를 맡겼다. 그만큼 이영하를 팀 주축 투수로 키우려는 김 감독의 의도는 강하다. 이런 스파르타식 교육은 점점 더 확실한 결과를 만들고 있다. 이영하는 지난해와 같은 10승을 올래도 기록했지만, 평균자책점은 2점 가까이 낮아졌다. 2018년 기록은 10승 3패 평균자책점 5.28, 올해는 10승 2패 평균자책점 3.53을 기록 중이다.

그렇다고 김 감독이 마냥 재촉만을 드는 건 아니다. 이영하의 발전에 대해 묻자 "변화가 좋아졌다. 볼카운트를 유리하게 가져갈 줄 알고, 빠른 컷 패스트볼도 던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승을 기록해 다행이다. 이제 본인도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겠는가.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영하는 23일 발표된 2019 WBSC 프리미어 12 1차 예비 엔트리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우완 투수 기근으로 고민이 많던 대표팀에 한줄기 빛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이다. 10승 투수 이영하의 가치는 아직도 수직 상승 중이다. 장은성 기자 award@donga.com